

번역학과 메타담론

이 향
(한국외대)

1. 서론

번역학이 언어학이나 문학, 혹은 기타 학문분야의 하위학문이 아닌 하나의 독립학문으로 성장해 온지 대략 3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번역물이나 번역행위, 혹은 번역을 수행하는 주체인 번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들이 번역학 내부에서 개진되어 왔다. 이러한 담론에 참여한 주체들 역시 그만큼 다양하여서, 번역학의 테두리 안에서 문학, 언어학, 철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학문지평으로부터의 관점, 해석, 접근이 만나면서 번역학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팽창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담론이 누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적 담론이다. 번역학 내부에서 대량으로 누적되고 있는 경험적 데이터들과 분석들은 대체로 번역학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기반성을 생략한 채로 이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번역학 연구는 그야말로 무한히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극히 혼질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본 연구는 번역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담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메타담론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번역학에서의 메타담론의 범주를 규정하고 그 필요성을 짚어 본 후, 기존의 주요 메타담론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향후 개진 가능한 메타담론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메타언어, 메타담론, 메타담화

강비에와 도어슬러는(Gambier & Doorslaer (eds) 2007: 1)는 번역에서의 메타언어를 주제로 하는 논문집의 서문을 홈즈(Holmes 1988)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저자들은 이미 1970년대 초에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고 번역학의 영역을 구획한 홈즈가 그의 기념비적 논문을 ‘메타 담론을 시작하자’¹⁾는 문장으로 끝맺고 있음에 주목하며, 그로부터 35년²⁾이 흐른 지금 과연 번역학에서의 메타담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이 서문을 읽으며 독자들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저자들이 시종일관 메타담론(Metadiscussion), 메타담화(Metadiscourse), 메타언어(Metalanguage)³⁾ 등의 개념을 명확한 구분 없이 동의어처럼 혼용하고 있

-
- 1) 원문은 “Let the meta-discussion begin”이다. 여기서 meta-discussion은 한국어로 ‘메타적 담론’, ‘메타적 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옮길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메타담론’으로 옮기기로 한다.
 - 2)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라는 제목의 논문은 홈즈가 1972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차 응용언어학회에서 처음 발표한 논문이다. 따라서 강비에와 도어슬러가 홈즈의 논문으로부터 35년이라고 말한 것은 홈즈의 1972년 응용언어학회 발표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홈즈가 해당 발표문을 수정하여 1988년 자신의 저서 *Translated! :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에 실은 것을 참고하였다.
 - 3) 본고에서 ‘metalanguage’는 ‘메타언어’로, ‘metadiscourse’는 ‘메타담화’로 옮기기로 한다.

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번역학자들은 메타언어를 사용하고 생산해 낸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메타담론이야말로 가장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Gambier & Doorslaer (eds) 2007: 4). 용어의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서문의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에 홈즈를 인용하는 부분에서 사용된 ‘메타담론’ 이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타언어’라는 말이 사용되며, 간헐적으로 ‘메타담화’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한다. 저자들이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메타언어, 메타담론, 메타담화는 과연 동일한 개념들인가?

일반적으로 ‘메타언어’란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는 ‘대상언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상을 서술하는 언어 자체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이다. 이를 번역학에 적용해 본다면, 번역학에서의 메타언어에 대한 연구란 번역 자체가 아닌, 번역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 은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정의될 수 있겠다. 서론을 제외하고 총 11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의 연구들이 소개되어 있는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의 제목을 일별해 보면, 저자들도 ‘메타언어’라는 개념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역학 내부에서 저자에 따라 전략(strategy), 기술(technique), 절차(procedure), 전이(shift) 등의 용어들이 명확한 합의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Gambier & Doorslaer (eds) 2007: 65-79), 그리고 새로운 개념어의 도입 문제(Gambier & Doorslaer (eds) 2007: 123-34)나 번역이론에서의 등가(equivalence) 개념의 정의(Gambier & Doorslaer (eds) 2007: 81-104)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메타언어는 분명 번역학 내부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들을 지칭하고 있으며, 결국 메타언어의 문제란 용어(terminology)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홈즈가 자신의 논문 말미에서 언급한 ‘메타담론’을 이러한 번역학 내부에서의 메타언어적(혹은 용어적) 문제

4) 실제로 이 논문집에 참여한 저자들 중 조셉 마르코(Josep Marco)나 이브 강비에(Yves Gambier)등의 저자는 논문 제목에서 이미 Terminology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Terminology와 Metalanguage는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용어적(혹은 메타언어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모든 Terminology가 메타언어적 속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메타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메타언어의 문제는 기존의 자연언어나 학술언어 자체에 대한 반성적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로운 용어 사용이나 개념사용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면이 있다.

로 해석하는 이들의 입장이 타당한가? 다시 말해 이들이 인용한 홈즈(Holmes 1988)의 마지막 문장은 과연 이러한 용어적 작업을 서두르자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홈즈의 문제의 논문으로 되돌아가보고자 한다. 홈즈는 번역학의 다양한 영역들을 구획, 망라한 후,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자신의 번역학지도(Map)가 누락시킨 영역들이 존재함을 아래와 같이 고백한다.

“[...] there are two further dimensions that I have not mentioned, dimensions having to do with the study, not of translating and translations, but of translation studies itself. One of these dimensions is historical [...]. Likewise, there is a dimension that might be called the methodological or meta-theoretical, concerning itself with problems of what methods and models can best be used in research in the various branches of discipline [...] but also devoting its attention to such basic issues as what the discipline itself comprises.” (Homes 1988: 79)

위의 글에서 홈즈는 자신이 누락시킨 영역으로 역사적 차원, 방법론적 차원, 메타이론적 차원 등을 언급한다. 결론적으로 홈즈는 번역물이나 번역행위가 아닌 번역학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의 세 가지 차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메타담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홈즈의 설명을 토대로 메타담론에 속하는 연구영역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번역의 역사(historical) : 번역물 기술(description)의 역사, 번역교육의 역사, 번역사 양성의 역사 등

번역방법론(methodological) : 어떤 방법론이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메타이론(meta-theoretical) : 번역학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홈즈에게 메타담론이란 결국 번역의 역사, 방법론, 그리고 메타이론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번역의 역사를 제외한 번역방법론과 메타이론을 번역학에서 참된 지식이나 앎의 성격, 근거 또는 그 획득 방법 등에 관한 논의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를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epistemological) 논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흄즈의 메타담론은 크게 두 가지 축, 역사적 담론과 인식론적 담론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흄즈의 메타담론은 번역학 내부에서의 메타언어 혹은 전문용어 등에 대한 성찰과 별개로, 번역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대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 예를 들어, 번역학의 명칭, 연구영역, 연구방법론 문제 등에 대한 성찰을 포괄하는 담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흄즈는 그러한 메타담론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 된다. 흄즈는 현재까지 번역에 대한 연구들을 지칭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명칭들(translationology, translatics, theory of translating, science of translation)을 검토한 후,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라는 명칭을 제안한다(1988: 69). 또한 번역학의 목표를 “번역 및 번역하기 현상을 기술”하고 이로부터 “번역현상을 설명, 예측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번역학의 연구영역을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과 이론번역학(Theoretical Translation Studies)으로 구획한다. 번역학에서의 ‘읽’의 대상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기술한 흄즈의 논문은 흄즈 스스로 제시한 메타담론의 정의에 놀라울 정도로 들어맞는다. 흄즈의 번역학 지도의 한계가 끝없이 지적됨⁵⁾에도 불구하고 3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번역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빈곤한 ‘메타담론’이라는 화두를 최초로 던진 논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흄즈의 메타담론을 ‘메타언어’ 혹은 ‘전문용어’의 의미로 해석한 강비에와 도어슬러는 흄즈를 오독하였거나 적어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이 된다. 물론 번역학 내부에서의 메타언어 및 개념어의 문제가 번역학에 대한 메타담론의 영역과 중첩될 여지는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등가(equivalence)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번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 더 넓게는 번역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을 것

5) 헤르만즈(Hermans)는 오늘날의 번역학이 흄즈의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가변적(more varied and volatile)인 모습으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한다(2002: 1). 한편 피(Pym)은 번역학 지도(Map)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현상을 특정 방향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1998: 3).

이다. 그러나 홈즈가 이러한 메타언어적, 용어적 차원보다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 무게를 두고 있음은 명백해 보인다. 메타언어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는 반면, 번역물이나 번역행위가 아닌 번역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담론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담론의 시급함을 역설한 것이 바로 홈즈의 논문이 가지는 의의인 것이다.

3. 왜 메타담론이 필요한가?

그런데 홈즈는 자신의 논문을 ‘메타담론을 시작하자’는 말로 끝맺으면서도 왜 그러한 메타담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아할 정도로 말을 아낀다. 메타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번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인식론적, 역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으나, 우리는 학제적 학문(interdiscipline)으로서의 번역학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메타담론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초기의 번역학이 온전한 독립학문분과로 인정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면, 오늘날의 번역학은 그 스스로를 ‘학제적 학문(interdiscipline)’이라 규정하고 타 학문과의 효율적인 협력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학 내부에서 번역학의 학제적 성격을 주제로 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스넬 혼비(Snell-Hornby 1988: 1)는 ‘과거 번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문학작품의 번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반면 새로이 성립된 번역학(translation science, translatology)에서는 문학번역을 배제한 번역만이 소위 과학적 접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국한되어 왔음’을 통탄하며,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서 문학번역 진영과 비문학 번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밖에도 번역학이 다양한 학문의 교차점(intersection)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셔틀워스와 코위(Shuttleworth & Cowie 1997: v), 자신의 주저 『번역학 입문』의 마지막 장인 제11장을 번역학의 학제성(translation studies as an interdiscipline)에 관한 언급과 전망으로 끝맺은 먼데이(Munday 2006: 258-79), 2002년 리스본에서 ‘학문들의 교차로(A

crossroads of disciplines)’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의 논문들을 ‘다양한 학문의 인터페이스(interface)에 위치해 있는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at the interface of disciplines*)’이라는 제목으로 묶어 소개한 두아르트 외(Duarte et al 2006)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학제성에 대한 논의는 번역학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학을 학제적 학문이라 말할 때,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사실 학제적 학문, 혹은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다의적이고 모호하다. 학제성은 때로 번역, 혹은 번역행위가 하나의 학문적 테두리 내에서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번역에 대한 성찰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특질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저자들은 신생학문인 번역학이 신속히 하나의 독립 학문문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일종의 태도, 다시 말해 타 학문(혹은 인접 학문)에 대한 수용적, 개방적 자세를 의미하는 말로 ‘학제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적 지평으로부터 번역학이라는 공간 안으로 모여 든 연구주체들 간의 혼질적이고 복합적인 논의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제성’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카인들(Kaindl 2004)이 제시한 학제적 학문 발전의 3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번역학이 학제적 학문으로서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를 판단할 유용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카인들은 학문간 협력의 종류에 따라 그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는 제국주의적 성격의 학제적 협력(imperialistic interdisciplinarity)이다. 여기서 ‘제국주의적’이란 표현은 은유적으로 쓰인 것으로 특정 학문이 그 개념이나 이론, 혹은 방법론을 타 학문에 그대로 강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1960-70년대 언어학 이론들이 여과 없이 번역에 적용되었던 상황이 이러한 단계에 해당된다.

제2단계는 해당 학문이 자체적인 툴(tool)과 방법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 학문으로부터 이를 수입(importing)해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제적 협력이다. 이러한 경우 한 학문이 번역학에 단순히 툴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므로 상호적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3단계는 협력의 최고지점인 상호적(reciprocal) 단계로 둘 혹은 그 이상의

학문이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하며 공동으로 방법론과 개념들을 개발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카인들은 번역학이 진정으로 학제적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 학문으로부터 개념과 방법론을 차용해 오는 단계를 넘어서서 ‘상호적’인 협력이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Snell-Hornby 2006: 72 재인용).⁶⁾

이상의 설명에서 카인들은 막연히 학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것이 아니라, 현재 번역학 내부에서의 학제적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의 문제, 다시 말해 학제적 협력의 질적 문제(quality)에 대해 성찰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카인들은 현재의 번역학이 3단계의 발전과정 중 2단계, 즉 타 학문으로부터 다양한 툴(tool)들을 수입해 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물론 그의 주장은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측정할 수도, 검증할 수도 없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단순 지표들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할 때, 국내외적으로 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되고, 통번역학 전문 학술지들이 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번역학이 언어학의 개념적 도구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1단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늘날의 번역학이 타 학문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하는 3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론적으로 번역학은 이미 학제적 협력의 2단계로 진입했거나, 혹은 그러한 진입의 과정에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백하다. 번역학이 학제적 협력의 최고지점인 3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타 학문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번역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흠즈가 그 필요성을 제기한 ‘메타담론’이야말로 이러한 이행을 가능케 할 열쇠라고 간주한다. 다시 메타담론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학제성과 메타담론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번역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담론은 번역학이 학제적 학문으로 성장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6) 카인들의 학제적 학문의 협력 3단계와 관련된 부분은 필자가 2007년에 이미 다른 지면에서 소개한 부분을 다소의 수정을 거쳐 대부분 그대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참고, 이향, 「Snell-Hornby를 중심으로 살펴본 번역학에서의 학제성 개념 고찰」,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9(1): 55-72).

오늘날의 번역학 연구는 ‘혼질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이커(Mona Baker 1996: 9)는 이미 오래 전 번역학의 모습을 무수한 접근(approaches), 지평(horizons), 그리고 방법론(methodologies)들 간의 급격한 변화(radical changes)와 파편화(fragmentation)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혼질성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지평과 방법론의 공존은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들이 번역학 내부에 축적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실제로 이러한 복잡다단함속에서 번역학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번역학이 학제적 학문이고자 할 때, 문제는 달라진다. 번역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을 탐구대상으로 해야 하고, 어떤 방법론이 채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내적 차원에서의 메타담론 없이, 타 학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공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메타담론을 통하여 하나의 방법론이나 하나의 방향이 정당처럼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랑스의 번역학자 베르만(Berman 1989: 676)이 설명한 대로 “번역활동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유일한(global and unique) 이론이 가능하다고 상정하는 것은 번역의 공간이 결정적으로 복수적(plural)이고, 다질적(heterogeneous)이며, 통합불가능(non unifiable)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학 내부의 혼질성을 넘어서서, 번역학이라는 하나의 학문분과 안에 모여 있는 다양한 성찰들 간의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 연구들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없이 학문 대 학문으로 타 학문과 소통하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물론 번역학에서의 메타담론이 반드시 학제성을 염두에 두고 학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또 학제성의 제고가 메타담론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번역학이 성숙한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성장하는데, 메타담론이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4. 무엇이 누락되었는가?

우리는 앞서 메타담론이 어떻게 정의되며,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재의 번역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메타담론이 필요한가? 이 질

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까지 번역학 내부에서 개선되어 온 기존의 메타담론들을 개괄하고 그 속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우선 국내에서 메타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방대한 주제이기에 여기서는 개략적 논의만이 가능하겠으나, 우선 국내 번역학 전문학술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번역학 연구』 지에 지난 10년(2000-2009)간 실린 총 244편의 논문을 일차적으로 분류하여, 소위 ‘메타담론’에 속하는 논문들의 비중을 살펴보았다.⁷⁾ 물론 메타담론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논문들의 제목만 일별해 보아도,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한 텍스트유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ex. 시번역, 문학번역, 영화번역 등), 혹은 번역전략에 대한 고찰, 오역 분석 등 구체적, 경험적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번역의 역사, 번역학의 정의, 혹은 연구방법론 등 메타담론적 성격의 연구물은 지난 10여년을 통틀어 대략 10편미만⁸⁾으로, 사실 진정한 메타담론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사항이겠으나, 기타 번역학 전문 학술지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구체적 번역행위나 번역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그 자체로 번역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더 구체적으로는 번역 실무와 번역이론 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국내의 번역학 연구물들이 주로 구체적 번역의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 그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번역학이 ‘학제적 협력’을 말하고, 타 학문과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7) 여기서 해당 논문들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통한 분류는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고 또 그 자체가 별도의 지면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본고에서는 한국번역학회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실린 244편 논문의 제목, 논문초록,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단순분류에 그쳤음을 밝혀둔다. 국내 번역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성향을 분류, 분석하는 작업은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8) 메타적 담론에 속하는 논문들 중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2000 1(1), 번역학의 인식론적, 언어학적 정초 2000 1(1),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2004 5(1)」,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5 6(2) 등이다.

적 협력의 단계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분명, 현재의 번역담론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일부를 누락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학제적 협력, 혹은 번역학의 학제성에 대한 모든 논의들을 자칫 공허한 구호로 끝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번역학계는 어떠하였는가? 서구의 번역담론들을 개괄해 보면 메타담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그중 대표적 논의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담론의 대표적인 예로 1970년대 이후 조작학과(manipulation school), 텔아비브 학파(Tel aviv axi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온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을 들 수 있다. 번역학이 처방(prescription)으로부터 벗어나 기술(descrip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기술번역학의 출발점은 번역학에서의 앎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 what constitutes the subject matter of a proper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is (observable or reconstructable) facts of real life rather than merely speculative entities resulting from preconceived hypotheses and theoretical models.” (Toury 1995: 1)

위의 지문에서 뚜리가 번역학이라는 학문의 대상은 관찰 가능한 대상들이며 따라서 번역학은 경험과학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때, 이는 번역학에서의 앎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설과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사변적 주장들’이 아닌, 현상을 기술을 토대로 한 추론이어야 한다는, 인식론적 성격의 메타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담론의 또 다른 예로, 번역학 전문 저널 *Target* 의 지면을 통해 소개된 체스터만과 아로요의 공동기고문을 빼놓을 수 없다(Chesterman & Arrojo 2000). 경험과학으로서의 번역학을 지향하는 대표적 학자인 체스터만과, 포스트모던/해석학적 접근을 대표하는 아로요가 두 가지 입장 사이의 공통분모(shared ground)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발표된 후, 수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메타담론에 대한 반박이나 지지를 또 다른 메타담론을 통하여

표명하였다.9) 이러한 만남(혹은 충돌)은 문학번역, 실용번역, 통역 등의 영역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다시 언어별, 지역별, 주제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번역학계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메타담론에 대한 갈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논문에서 체스터만과 아로요(Chesterman & Arrojo 2000: 152)는 번역학의 주요 목적이 ‘번역현상을 이해’하고 어떤 종류의 텍스트들이 ‘번역’으로 규정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합의한다. 물론 뎀(Pym 2000: 334-337)이 지적하듯,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 가면 경험적 연구를 지향하는 체스터만과 해석학적 입장을 견지하는 아로요 사이의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않으나, 이들의 공동기고문은 번역학이 어떤 학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대표적 메타담론을 살펴다 보면, 우리는 홈즈에서 출발하여, 뿌리, 체스터만에 이르는 하나의 계보를 발견하게 된다. 이들을 하나로 엮는 것은 번역학이 방법론의 차원에서나 그 인식론적 차원에서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이어야 한다는 확신이다.

우선 홈즈는 이미 자신의 논문 안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메타담론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교적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다.

“...translation studies is, as no one I suppose would deny, an empirical discipline.” (Holmes 1988: 71)

여기서의 경험과학(empirical discipline)이란, 홈즈가 인용한 험펠(Hempel)이 설명하듯,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하고, 이로부터 일반적 원칙들을 도출해 내어 해당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번역학이 경험과학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홈즈는 경험과학의 잣대로 분류 불가능한 영역 전체를 번역학 지도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홈즈의 번역학지

9) 최초 두 저자의 공동 논문이 *Target* 12(1)호에 게재된 이후, 12(2), 13(1), 13(2)호에 걸쳐 총 14명의 저자들이 이들의 공동기고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편집자가 14(2)호에서 두 저자에게 마지막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도는 정확히 말해 ‘경험적 번역학의 지도’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메타담론’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험적 방식으로 연구 가능한, 경험적 메타담론이었던 것이다.

번역학이 경험과학이어야 한다는, 혹은 궁극적으로 경험과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신념은 체스터만에게서도 발견된다.

“A number of trends can be distinguished in translation studies over the past decade or so. One is the broadening of interest from *translational studies* (focusing on translations themselves) to *translatorial studies* (focusing on translators and their decisions). Another is a move from prescriptive towards descriptive approaches. However, I think the most important trend has been the shift from philosophical conceptual analysis towards empirical research.” (Chesterman 1998: 201)

위의 글에서 체스터만은 번역학이 지난 10년간 겪었던 주요 변화로 번역물로부터 번역사로의 관심이동, 그리고 처방적 담론에서 기술적 담론으로의 이행, 그리고 철학적, 개념적 분석으로부터 경험적 연구로의 이동을 꼽고 있으며, 그 중 경험적 연구로의 이동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고 있다.¹⁰⁾ 위의 글에 이어 체스터만은 현재까지의 개념적/비(非)경험과학적(*conceptual/non-empirical*) 연구들이 번역이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번역학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번역학이 진정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변적 성찰들이 아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보는 경험과학적 패러다임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hesterman 1998: 202-203). 이러한 입장은 그가 공저자로 참여한 대표적 저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윌리엄스와 체스터만(Williams & Chesterman 2002: 69-100)은 제4장에서 번역학 내부의 연구의 종류들을 언급하면서 개념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모두 언급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지만, 이후 제5장부터 7장까지의 설명은 주로 가설을 세우는 법, 변수들 간의 관계, 데이터 선정 및 분석 등 경험과학적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설명들에만 할애되어 있다. 홈즈의 번역학 지도가 경험과학으로서의 번역학

10) 스넬혼비 역시 1990년대 번역학을 경험주의적 전환(*empirical turn*)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다(Snell-Hornby 2006: 115).

의 지도였던 것처럼, 윌리엄스와 체스터만의 『번역학연구의 길잡이』 역시 ‘경험적 번역학의 길잡이’인 것이다. 번역학이 ‘관찰 가능한 대상’들의 기술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 뚜리 역시 경험과학으로서의 번역학을 지향하고 있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면 홈즈와 체스터만, 뚜리가 배제한 번역학 담론들, 다시 말해 경험과학의 범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를 번역에 대한 ‘형이상학적(metaphysical)/개념적(conceptual)’ 접근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번역에 대한 형이상학적 접근은 앞서 언급한 인식론적 접근과 번역에 대한 메타담론의 일부를 포괄하면서도, 경험적 방법론만으로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한 일련의 문제들을 성찰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방법론적 반성이나 비판을 포함한다. 번역사의 윤리나 정체성 문제, 번역 충동의 문제, 철학의 영역에서 진행된 번역에 대한 형이상학적 담론들, 후기식민주의 담론, 번역과 젠더의 문제 등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경험과학적 담론과 마찬가지로, 비 경험과학적 담론 역시 그 안에 지극히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학문적 지평으로부터의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

5.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철학적 메타담론

경험과학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번역담론들 중 중 번역에 대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메타담론은 경험과학적 번역학이 누락시킨 문제들 중 상당부분에 대한 성찰을 가능케 한다. 번역학이 인식론적, 방법론적 성찰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면, 철학은 언어의 문제, 번역의 문제, 인식의 근거나 방법의 문제 등에 이미 오래전부터 천착해 왔기 때문이다. 번역학은 철학의 개념들을 메타담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철학은 번역학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실무적, 실용적 논의들을 통하여 그 자신의 형이상학적 범주들(예를 들어, (번역)욕망, 자기(언어)와 타자(언어) 등등)이 번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되는지를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과 번역학의 만남은 현재 번역학에 필요한 메타적 담론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학제적’ 협력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먼데이(Munday

2006: 266)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학자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의 주위에 처진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기를 주저하거나 무슨 사정에서인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듯하다.”

그런데 번역학의 역사를 개괄해 보면, 이미 몇몇 저자들이 번역학과 철학 간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모험을 꾸준히 시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철학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번역에 이른 철학자로 슐라이어마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슐라이어마허는 ‘저자를 독자에게 데리고 가는가? 혹은 독자를 저자에게 데리고 가는가?’의 이원론을 통해 이후 수세기 동안의 번역담론을 지배하게 될 화두를 함축적으로 정리해 내었다(Shleiermacher 1813).

이밖에도 「번역가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하여 번역의 궁극적 지향에 대한 극도로 사변적인 성찰을 제안한 벤야민(Benjamin 1921), 프랑스의 철학전통 속에서 번역을 통해 ‘언어적 환대’ 개념에 이른 리코어(Ricoeur 2004) 등의 저자들이 철학으로부터 번역학으로 성찰의 영역을 확장시킨 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번역학에서 출발하여 그 성찰을 철학적 단계에까지 끌어올린 저자들은, 번역의 문제를 언어들 간의 역학관계로, 번역전략을 그러한 위계를 전복하는 수단으로 조망한 베누티(Venuti), 독일낭만주의시대의 번역에 대한 철학적 담론들을 토대로 번역의 윤리적 지향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제안한 베르만(Berman 1984), 그리고 번역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방대한 번역철학을 구축해가고 있는 라드미랄(Ladmiral 1994)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미미하게나마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이야말로, 번역학 내부에서 본격적인 철학적 메타담론을 개진하는데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¹¹⁾

11)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번역학에서의 철학적/비 경험과학적 논의를 개략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저자들과 관련하여서는 필자가 공동역자 혹은 저자로 참여한 아래의 논문 및 번역서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윤성우, 이항 (2009) ‘De Berman à Venuti; Approches postcoloniales sur la traduction’ *Forum* 7(1): 203-221.

윤성우, 이항 (2009) 「번역학은 설명의 과학인가? : 체스터먼(Chesterman)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1(2): 111-129)

윤성우, 이항, 율김 (2009)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독일낭만주의 문화와 번역』,

6.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번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반성이 필요한 이유를 고찰하고, 기존 메타담론에서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향후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능성으로서의 철학적 메타담론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번역학이 진정한 학제적 학문으로서 타 학문과 대등한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메타담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학이 경험적 데이터를 단순 누적하는 차원을 벗어나, 해당 데이터들이 번역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새겨 보고 그 한계를 반성할 수 있으려면, 번역학 자체에 대한 거시적, 메타적 담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홈즈가 20여 년 전에 ‘메타담론을 시작하자(Let the meta-discussion begin!)고 외쳤다면, 이제 ‘메타담론을 다시 시작하자(Let the meta-discussion begin again!)고 외쳐볼 때이다.

참고문헌

- 이향 (2007) 「Snell-Hornby를 중심으로 살펴본 번역학에서의 학제성 개념 고찰」, 1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9(1): 55-72.
- 정연일 율김 (2006) 『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서울: (주)이지북스 (Williams, Jenny & Chesterman, Andrew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정연일 남원준 율김 (2006) 『번역학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1996) 'Linguistic and cultural studies: Complementary or
-
- 서울: 철학과현실사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Paris: Gallimard).*
- 윤성우, 이향 율김 (2006) 『번역론』, 서울: 철학과현실사 (Ricoeur, Paul (2004) *Sur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competing paradigmes in Translation Studies?'. Angelika Lauer, Heidrun Gerzymisch-Arbogast, Johann Haller and Erich Steiner (eds), *Übersetzungswissenschaft im Umbruch: Festschrift für Wolfram Wilss zum 70. Geburtstag*. (pp. 9-19) Tübingen: Gunter Narr.
- Benjamin, Walter (1971(1921)). 'La tâche du traducteur' In Walter Benjamin, *Oeuvres I. Mythe et violence*, trans. Maurice de Gandillac. Paris: Les Lettres Nouvelles.
-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_____ (1989) 'La traduction et ses discours', *Meta* 34(4): 672-679.
- Chesterman, Andrew (1998) 'Causes, Translation, Effects', *Target* 10(2): 201-230.
- _____ (2001) 'Empirical research methods in Translation Studies', *Erikoiskielet jakäänösteoria (VAKKI-symposiumi XX)* 27: 9-22.
- Cherterman, Andrew & Arrojo, Rosemary (2000)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12(1): 151-160.
- Duarte, João Ferreira, Assis Rosa, Alexandra & Seruya, Teresa (eds) (2006) *Translation studies at the interface of disciplin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ambier, Yves & Doorslaer, Luc van (eds) *The Metalanguage of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ermans, Theo (ed) (2002)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Manchester: Saint Jerome.
- Holmes, James Stratton (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66-80.
- Ladmiral, Jean-René (1994) *Traduire :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Pym, Anthony (1993) *Epistemological problems in translation and its teaching*,

Calaceit: Caminade .

_____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aint Jerome Publishing.

_____ (2000). 'Why common ground is not automatically space for cooperation; On Chesterman versus Arrojo' *Target* 12(2): 333-362.

Ricoeur, Paul (2004)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Schleiermacher, Friedrich (1999(1813)).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 et autre texte*, trans. A. Berman, Paris: Editions du Seuil.

Shuttleworth, Mary & Cowie, Moira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aint Jerome.

Snell-Hornby, Mary ([1988] 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_____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Snell-Hornby, Mary et al (1992)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Venuti, Lau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ranslation Studies and meta-discussion.

Lee, H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encourage meta-discussions, which are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Studies. A meta-discussion refers to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ranslation Studies itself, rather than on the act of translating or translations. A meta-discussion also includes an examination and self-reflection on the characteristics, scope, and methodologies of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consists of four main parts. In the first part, the meaning of a meta-discussion as it pertains to Translation Studies is clarified. In the second part, based on the concept of interdisciplinarity, an explanation of the development phases of Translation Studies will be given. By explaining these phases, the reasons for the need of meta-discussions will be addressed.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reviews meta-discussions on Translation Studies at home and abroad, and points out their limitations. Finally, the last part suggests a philosophical meta-discussion as a future path that meta-discussions in general should headed toward.

▶ Key Words: meta-discussion, Holmes, empirical Translation Studies, philosophical Translation Studies, interdisciplinarity.

이향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번역철학, 번역품질평가, 번역물감수

논문투고일: 2011년 01월 28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03월 11일